
제50호 방송심의보고서

2019.12.06.~12.12.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일자	2019. 12. 6.	시청률	0.000

【총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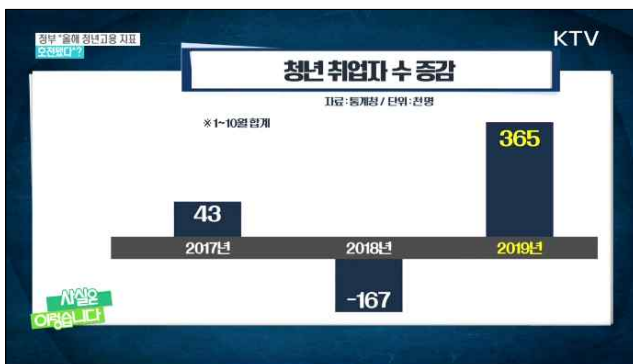
이번 방송에서는 지난 10월 청년 고용지표가 상당히 호전되었다는 정부의 발표와 관련하여 늘어난 청년 일자리의 대부분이 초단기 일자리, 시간제, 임시직이라는 보도에 대해 통계를 잘못 해석했거나 적용을 자의적으로 한 데서 오는 오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2년간의 전국 땅값 상승과 관련하여 정부와 경실련의 적용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땅값 상승분 공방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시각차이 및 해석차이를 고려하여 설명을 해주었다.

【구성 및 내용】

- 팩트 체크 1 → 늘어난 청년 일자리 대부분이 초단기인데, 고용 좋아졌다는 정부? 통계청의 늘어난 청년 고용 수치에 관해 보도에서 다른 수치와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 간의 차이를 얘기하고 수치 집계 방식의 문제점을 밝혀내어 팩트를 뒷받침했다.
- 팩트 체크 2 → 文정부 2년간 땅값 2,000조원 올랐다?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정부의 발표를 비교하며 역시 수치 간의 차이에 집중하여 다루었고 기준의 차이라는 원인을 분석해냈다. 표준지공시지가현실화율과 전국땅값, 문 정부 2년간의 오름세 등이 한 눈에 정리되어 경실련의 발표가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팩트 체크 3 → 실수요자 두 번 올리는 정부, 일자리는 늘었지만 더 가난한 노인들, 대출규제와 노인일자리 정책에 관해 팩트 체크를 짧게 다루었다.

【참고사항】

03:00 청년 취업자 수 증감률에 대해 전년 동월 대비 화면 그래픽 자료를 통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2018년과 2019년의 증감 수치에 대한 설명을 착각하여 잘못 정리하여 주었다.



명민중 진행자: 청년 취업자수의 증감율을 보면 **2019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16만 7천명인가요. 그렇죠.**

최영일 평론가: **네, 맞습니다.**

명민중 진행자: 그리고 36만 5천명으로 금년에 크게 증가를 했고

08:05 '청년층, 학업 병행 시기와 학업 후 본격적 구직시기 혼재'라는 자막에서 '혼재'보다는 '겹쳐'라고 표현했다면 뜻이 명료하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19. 12. 7.	시청률	0.012

【총 평】

이번 방송에서는 충북 제천시 소재 한 농공단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현실화된 경제적 손실 및 불편과 관련, 주차면수 확보와 더불어 각 지역의 도심지 내 주차 공간 부족 대응을 소개해 주었으며, 전북 장수군에 소재한 양돈축사의 악취로 인해 20년 이상 고통 받은 주민들 문제는 지자체에서 적극 개입하여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주었다. 이렇게 각 지역의 방치되었던 현안들이 민관의 협력으로 해결되는 모습은 바람직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한 방안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구성 및 내용】

■ 틈새 주차장, 교통·주차난 해소…반짝 아이디어 주목

충북 제천시에 소재한 농공단지는 4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며 단지 중간에는 왕복 2차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매일 대형트럭 등이 지나다니고 있다. 하지만 해당 농공단지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로 주정차로 인해 외부차량과 크레인 차량 등이 진입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제천시에서는 충북도 정주여건개선 공모 사업을 통해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틈새 주차장으로 22면을 확보했다.

■ 50년 함께한 악취 민원…축사매입 후 주민에 환원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주변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거밀집지역과 축사 간 일정 거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법이 1990년대 후반에 시행되어 이전 조성된 축사의 경우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전북 장수군 사곡마을 입구에 양돈 농장이 위치해 있었고 주택가와 20m 이내로 인접하여 주민들은 악취에 그간 고통을 받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20년 간 계속된 민원에 장수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해당 지역에 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농장을 매입하고 폐업을 진행했다. 해당 축사는 해당 마을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참고사항】

00:55 '50년 함께한 악취 민원…축사 매입 후 주민에 환원' 자막에서 '함께한'은 '계속된' 혹은 '지속된'이라고 표기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14:40 '양돈농가, 악취 민원'에서 인력운영 등의 제작환경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취재는 신국진 기자가 스튜디오 출연은 문기혁 기자가 했는데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야 할 부분이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19. 12. 7.	시청률	0.364

【총 평】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15회 방송은 우리나라에서 해가 맨 먼저 떠오르는 곳이자 바람소리와 바다 내음을 물씬 풍기는 경상북도 포항의 풍경을 담은 '포항, 바람의 맛 그리고 소리'였다.

포항의 명물인 해풍국수, 포항초 시금치, 구룡포 효자 과메기를 만들어 내는 비결 '포항의 바닷바람'이 소개돼 주목을 끌었다. 또, 모자가 대를 잇는 국수공장 50년의 사례가 고단했던 인생사와 쉬지 않는 장인정신을 국수를 만들고 말리는 과정의 음향으로 표현해내는 기법이 뛰어났다.

포항의 새 개의 바람을 특징 있게 잘 보여주어 영상만으로도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포항시 구룡포의 셋바람(동풍)과 국수, 포항시 연일읍의 하늬바람과 시금치, 포항시 장길리의 북서풍과 과메기 덕장을 통해 자연의 조화와 포항 바닷바람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장소소재 특징으로 '바람'을 부각했는데, 그 '바람'이 만들어낸 소재를 '시각-청각-미각'으로 두루 마련해, 다채로웠다. 포항의 먹거리-자연경관을 '소리'를 통해 다양하게 담아내 볼거리가 풍성했고, 오감을 자극하는 콘텐츠로 인해 생동감이 컸다.

【구성 및 내용】

과메기 제철을 맞아 이를 소재로 한 사운드멘터리 기획이 신선하고 맛깔스러웠다. 또한 해풍으로 말리는 국수 제조과정, 포항초 시금치 재배에도 포항의 알맞은 바닷바람이 한 몫을 한다는 점을 알려주는 메시지도 담긴 기획이었다. 생태학자인 장이권 소리 기록자가 포항 구룡포, 연일읍, 야시장, 장길리 등을 찾아 포항의 명물 바람의 맛과 소리를 담은 스토리 형식의 포맷이 주목도를 높였다.

과메기 제철을 맞아 콩치를 손질하고 바람과 햇빛을 거쳐 건조하고 숙성되는 과정에 대한 묘사가 포항이 만들어내는 맛 풍경과 소리를 음미할 수 있었다. 콩치의 손질과 세척 과정이 수산시장을 떠올리게 하고 바람과 햇빛이 조화를 이룬 덕장에서 얼었다 녹는 과정을 반복하며 과메기로 변신하는 풍경을 이색적으로 담아내 눈길을 끌었다.

국수공장 장인정신을 이끌어내 휴머니티를 살린 부분도 흡인력을 높이는 긍정적 요소였다. 자식같다는 국수 기계, 어머니의 뒤를 이은 아들의 가업, 울통불통해진 어머니의 손등, 셋바람에 건조되는 국수 가락, 국수 기계 소리와 바닷바람 소리 등이 잘 어우러졌다. 해풍 국수요리의 현장음, 포항초 시금치를 명물로 바꾼 바닷바람 소리, 야경 파도소리와 야시장 상인의 호객소리, 장길리의 첫 해돋이의 장엄함, 과메기를 말리는 덕장, 동해 바닷바람, 먹거리 등 비주얼(영상)과 사운드(음향)의 하모니가 사운드멘터리 품격과 완성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메디컬다큐 건강 더하기 행복		
방송일자	2019. 12. 8.	시청률	0.009

【총 평】

이번 회차의 메디컬 다큐 건강 더하기 행복에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우울증에 대해 우울증도 일반 질병처럼 편견이 없이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뇌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생기는 우울증은 마음의 독감으로 불린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20대와 60대 사례자들의 증상과 히스토리, 치료,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노력을 담백하게 소개했다.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인정하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다니며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사례자들의 모습은 많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영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도 우울증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울증의 근원을 알아보고 연령별로 어떤 유형으로 발병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어 유익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우울증, 일반 질병처럼 치료를 받는 환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례만을 소개했는데 역으로 극복한 사례도 아울러 소개했다면 내용도 충실해지고 느낌도 달라졌을 것이다.

【구성 및 내용】

■ 사춘기 시절부터 만성 우울증을 앓아 온 27세 남성

중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인간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인 상태였는데 병원 상담 장면부터 시작해 그의 소소한 생활 패턴을 모두 동행취재 하다 보니 환자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는 느낌이었다. 병원 진료 장면부터 그의 일상을 동행 취재하면서 평소의 생활 패턴을 보여주고 충분한 인터뷰를 통해 환자의 감정 상태를 잘 포착했다.

우울증 치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상담과 우울증 약인데 한동안 상담만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항우울제 처방을 받고 복용을 시작했다. 전문가는 일종의 루틴을 지켜가는 방식을 지켜나간다면 자신의 삶을 일부나마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소화불량 증상으로 시작된 62세 남성의 우울증

특이하게 소화불량으로 우울증을 인지해서 내원한 경우로 우울증 진료시 근육의 긴장과 이완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인상적이었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한 마디가 오늘 방송의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은 과거에 대해 우울해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현재를 놓치고 만다는 내용이었다. 이 언급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해서 방송이 끝나도 계속 여운을 남길 정도로 클로징 멘트로 좋았다.

프로그램	탐나는 정책 탐나는 대한민국		
방송일자	2019. 12. 8.	시청률	0.081

【총 평】

<탐나는 정책 탐나는 대한민국> 제15회는 ‘꿈꾸는 아이들의 길잡이, 진로교육정책’을 다뤘다. 수능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은 자신의 미래, 진로 결정에 대해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고교 3학년 교실을 찾아 학생들의 불안한 심정을 달래고 진로교육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안내하는 기획은 수험생들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으로 만족도를 높인 점이 돋보였다.

특히 수험생들이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진로직업 멘토링 현장인 ‘꿈길 사이트’를 안내한 것을 비롯해 진로체험 인증기관인 방송국 견학,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을 소개한 것은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유익했다.

또한, 외국인 젊은 층에 비친 우리나라 진로교육정책을 비교 평가하게 한 점도 기획의도를 살리는 부분이었지만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사례 소개를 배우, 방송분야, 설탕공예 등 특정 인기 분야에 치우친 부분은 설득력이 높지 않아 보였다.

【구성 및 내용】

청소년진로결정 가이드를 ‘단순 방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섬세하게 진단한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전문가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진로 결정할 때 직업에 국한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그 점 때문에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특정 직업이 아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진로의 길이 있음을 소개하는 기회가 돼 유익했다.

오늘 방송은 수능시험을 끝내고 진로를 고민하는 고교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진로교육정책을 소개하고 안내한 기획으로 고교3학년 학생들에게 당면한 진로 정보를 제공한 기획이 시의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또, 진로체험 인증기관인 방송국 견학,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을 소개한 것은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유익했으며, 수험생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로 정보를 제공한 구성이 돋보였다.

이와 함께 교육부 진로직업 멘토링 현장인 ‘꿈길 사이트’를 안내해 진로교육 정책알림이 역할을 한 것도 긍정적이었다. 진로체험 정보와 인력을 제공하고 체험처 발굴과 학교매칭도 지원하는 역할이 소개됐다.

학생 스스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에프터스쿨레’를 소개한 덴마크 통신원의 ‘해외통신원’ 리포트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 에디, 소날 등 외국인 젊은층에 비친 우리나라 진로교육정책을 비교 평가하게 한 점도 기획의도를 살리는 부분이었다. 러시아 출신 국제학교 학생인 에디와 인도출신 여성 소날도 적극적인 자세로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방송세트장에서는 장군과 공주 복장으로 궁중 로맨스 한토막을 연기하는 열의도 보였다.

프로그램	KTV 뉴스중심		
방송일자	2019. 12. 10.	시청률	0.042

【총 평】

이번 358회 방송에서는 재난보도, 국민관심사, 생활정보 등이 잘 다뤄져 시청자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KTV 정체성 제고에 기여한 점이 두드러진 뉴스였다.

독도 해역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에서 대통령이 “순직대원 희생을 추모하고 국민안전에 무한 책임감을 지겠다”고 언급한 추도사 내용이 소개됐다. 재난정보 신속보도 차원에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상황도 적절했다. 차량운행제한과 공사장 가동률 조정 내용도 리포트 내용에 포함돼 위기대응 안내 서비스에 만전을 다하는 모습이 KTV정체성 제고에 기여했다. 생활정보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한 부분도 돋보였다. 연말을 맞아 연말정산 절세팁, 세금신고 스마트 폰으로 확인, 더 MORE뉴스 아이템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국민관심사인 ‘민식이법’ 국회 통과, 유엔안보리, 북한 미사일 논의 기사가 보도된 것도 긍정적이다.

【구성 및 내용】

■ 눈물의 합동 영결식...“국민의 안전에 책임감”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 소방구조헬기 사고로 순직한 소방대원의 합동영결식 추도사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국가가 소방관의 안전과 자부심을 더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초미세먼지‘나쁨’...수도권·충북 ‘비상저감조치’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여 수도권과 충북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 등 다양한 감축 대책 정보를 전달해 시의 적절했다.

■ 이 총리 “연말연시 공직사회 기강 확립”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과 내년 총선 관련해서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거듭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 서울·경기, 교통안전 1위...범죄안전은 세종·경북

올해 ‘지역안전지수’가 공개됐음을 전하고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와 생활안전 등 6개 분야의 지역별안전수준을 전체 CG화면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살펴 관심도를 높인 보도였다.

■ 국세청, ‘연말정산 절세팁’ 유튜브로 공개

국세청이 연말정산 개념부터 각종 소득·세액 공제와 절세팁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관련 내용을 전체 CG도표 자료화면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매우 유용했다.

■ 항일 비밀조직 편지·이력서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청이 김구 선생이 조직한 항일 비밀단체, 한인애국단 단원들이 쓴 편지와 이력서 등 임시 정부 유물 5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19. 12. 10.	시청률	0.023

【총 평】

‘한중일 정상회담’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그리고 ‘2019 지역안전지수 공개’까지 뉴스 밸류가 높은 기사를 순서대로 빠짐없이 꼼꼼하게 커버해 완성도를 높였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기자들이 수준 높은 리포팅으로 발음과 템포 모두 일정 수준에 올라섰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미세먼지 관련 대응조치들이 다뤄졌다.

【구성 및 내용】

- 24일 한중일 정상회의, ‘중일과 양자회담 조율’
중국 청도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예정이며 한일 정상회담 시 지소미아 및 수출규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눈물의 합동 영결식, ‘국민 안전에 책임감’
독도 소방헬기 순직대원 합동 영결식이 열렸으며 문 대통령은 사고 원인 규명 및 소방헬기 관리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초미세먼지 나쁨, 수도권 충북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에서의 미세먼지 유입 및 국내 대기 정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한-호주, 2+2 장관회의 ‘북 엔진시험 중단 촉구’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에서 북한 동창리 엔진시험에 우려를 표명했다.
- 서울, 경기, 교통안전 1위, 범죄안전은 세종, 경북
2019 지역안전지수 공개 결과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서울, 경기, 화재는 광주와 경기, 범죄는 세종과 경북이 1등급으로 나타났다.
-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WHO 권고 수준으로 낮춘다’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WHO 권고 수준으로 낮추며 탈석탄 사회 및 전기수소차 보급 등의 계획이 담겼다.

【참고사항】

크리스마스실 증정식, ‘결핵퇴치 동참’과 뉴스링크의 ‘크리스마스 썰’의 표기가 달랐는데 ‘크리스마스 썰’이 일반적인 표현이다

프로그램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일자	2019. 12. 12.	시청률	0.009

【총 평】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통계 바꿔 경제지표 높이는 정부?’라는 주제로 짚은 경제지표 개편으로 통계에 대한 불신이 증가한다는 일간의 언론보도에 대한 팩트체크를 다루었다. 오늘은 이만제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 과장이 출연하여 통계 관련한 오보와 통계 해석의 오류를 되짚어 주었다.

통계청 경기지표의 종류, 경기순환이 일어나는 이유 등 경기지표의 기초지식 설명과 함께 2월 보정 9월 개편으로 인해 경기종합지수가 좋아졌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팩트체크를 이어갔다. 경기종합지수 2월 보정과 9월 개편을 실시한 이유와 통계청 경기지표와 해외 발표 지표와의 격차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주었다. 경기를 판단하는 각종 통계지표와 지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뒤 팩트 체크로 들어가 어려운 용어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고,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그래픽은 잘못된 정보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

최대환진행자의 진행이 돋보였는데, 전문가의 설명보다 더 쉽게 설명하여 시청자들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구성 및 내용】

‘이유 없는 보정, 설명 없는 개편’이라는 정부통계에 대한 비난을 ‘보정과 개편’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결과적으로 경기에측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보정과 개편’ 작업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해온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것도 통계청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해 시비가 무리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결과적으로 통계라고 하는 것이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나눠서 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경제 아이템 관련 주제는 기획 구성 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고, 시청자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오늘처럼 어려운 통계 관련 주제일 경우, 개론부터 들어가기보다 본질을 먼저 짚어주면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것이 시청자들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접근 방법이다.

■ 팩트체크: 2월 보정, 9월 개편으로 경기종합지수가 좋아졌다?

2월 보정 9월 개편으로 인한 경기종합지수의 개선효과는 수치상으로는 사실이다. 9월 개편으로 경기정점이 2017년 9월로 명확해졌고 GDP 순환변동치 정점과도 일치, 즉 보정과 개편으로 경기정점의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경기종합지수, 9월 개편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난해부터 외부의 지적이 있었는데 선행 종합지수는 경제 상황을 예측 지표임에도 최근 경기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편을 추진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경기 예측력이 향상되었다.